



# 유가전쟁 불붙다... 한국 '3중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란, 미국 유조선 공격 '쇼크' WTI 8.5% 급등해 80弗 돌파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 UAE서 600만배럴 긴급수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일주일째로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을 빠르게 돌파했다. 달러당 원화값도 다시 1480원을 위협하고 있다. 고유가가 방아쇠가 돼 '3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고물가 상황이 펼쳐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산 가격 약세를 부르고, 이자 부담을 키워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81.01달러로 전일보다 8.51% 급등했다. 2024년 7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CG)가 호르무즈 해협 바깥 걸프해역에 정박 중이던 미국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결정타가 됐다. 인플레이션 염려가 확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유가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압박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관련기사 A2·3·4·5면**

중동 사태는 국내 물가도 자극하고 있다. 6일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1900원을 돌파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19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600만배럴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협의해 600만배럴 도입을 확정했다"며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원유 600만배럴은 국내 사용분 2·3일 치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연속유가 문제를 거론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름 값 최고가격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지용·김술자·성승훈 기자**



이란 공격에 구명난 美유조선...유가는 천정부지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바깥 쿠웨이트 쪽 해역에 정박 중이던 바하마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호가 이란 공격을 받아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검게 그을려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유조선 운영사는 성명에서 "작은 보트가 유조선의 좌현 쪽에 접근했고 곧 '광'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작은 사진은 이 선박이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 가비르항 인근에서 정박 중인 모습. **X 캡처**

## 李대통령,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주문

부동산·주가조작·중대재해 등  
관련부서 전방위 조사 나설듯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채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

으로 나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A6면**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경찰청·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 부처와 유관 기관이 7대 비정상 척결을 위한 전방위 조사·수사 등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정비가 잘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코스닥만 3% 상승

널뛰던 코스피 일단 숨고르기 (프로그램 매매 효력 일시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매수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하고, 지수가 3% 이상 오를 때 발동된다.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7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출주비중이 작은 코스닥이 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한 가운데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이 4718억원을 순매수했다. 오는 10일 출시 예정인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제림 기자**

## 12년째...韓소득 3만불 함정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에도 '3만달러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12년째 4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A5면**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명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평균 소득은 3만6500~3만6600달러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3만6100달러대로 추정된다. GNI가 GD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3만6000달러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작년 평균 달러당 원화값이 2024년에 비해 55원가량 낮아진 탓에 달러화로 환산한 값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처음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는 3만7898달러까지 늘어나며 4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작년 1인당 GNI  
최대 3만6600弗  
원화값 하락 탓도  
4만弗 돌파 대만  
"내년은 4만5천弗"

반면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GNI 개선을 이끌며 1인당 GNI도 2024년 3만5531달러에서 지난해 4만585달러로 '퀀텀 점프'를 했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1인당 GNI를 4만5273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환·문지용·김금이 기자**

### 1인당 GNI

명목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표시한다. 국내총생산(GDP)과 달리 GNI는 자국민의 국외 소득을 포함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다.



### 더존 ONE AI가 대신해 드립니다.

- 방금 진행한 화상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담당자별로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만들어서 참여자에게 메시지로 보내줘
- 각 부서에서 제출한 비용 청구서를 검토해 중복 청구나 기준 이상 비용 항목을 식별하고, 수정 및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별로 정리해줘
- 이번달 제출된 지출결의서 금액과 실제 증빙 영수증 금액이 불일치한 부분을 찾아내고, 수정 요청 메모를 첨부해 재승인 절차를 진행해줘
- 사업부문 경비 현황을 분석해 이전 달 대비 변동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항목별 증감액과 비율을 알려줘

#효율성 #생산성 #신뢰성 #보안성 #원하는 건 무엇이든

## 내가 원(ONE)하면 AI가 줍니다

"지금은 업무 효율화가 가장 필요한 때!"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I)까지 업무 효율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 더존이 정답입니다.

|   |                                       |  |
|---|---------------------------------------|--|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AI서비스 |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업무 효율성을 경험 | 기업의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강력한 보안성 확보 |
|---|---------------------------------------|--|

